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동원참치 왜곡광고에 항의 빗발 「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운운 —본회와 생산자단체 항의, 해명요구—

전하는
올적한 소식



본회와 양돈, 낙농육
우등 3개 생산자단체
는 지난 5월 20일자 격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
(매일 경제신문사 발
행)에 가축의 고기(동
물성 단백질)를 먹으

면 마치 명(命)만큼 살
지 못하는 것처럼 왜
곡되게 광고선전하여
축산물 소비에 썩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회와 양돈, 낙농육
우등 3개 생산자단체
는 지난 5월 20일자 격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
(매일 경제신문사 발
행)에 가축의 고기(동
물성 단백질)를 먹으
면 마치 명(命)만큼 살
지 못하는 것처럼 왜
곡되게 광고선전하여
축산물 소비에 썩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회와 양돈, 낙농육
우등 3개 생산자단체
는 지난 5월 20일자 격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
(매일 경제신문사 발
행)에 가축의 고기(동
물성 단백질)를 먹으
면 마치 명(命)만큼 살
지 못하는 것처럼 왜
곡되게 광고선전하여
축산물 소비에 썩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운운
본회와 양돈, 낙농육
우등 3개 생산자단체
는 지난 5월 20일자 격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
(매일 경제신문사 발
행)에 가축의 고기(동
물성 단백질)를 먹으
면 마치 명(命)만큼 살
지 못하는 것처럼 왜
곡되게 광고선전하여
축산물 소비에 썩기를
촉진할 목적으로

동원참치
△ 동원참치사가 광고선
전해 언제나 되고 있는
광고문안.

박은 동원참치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 및 해
명을 요구했다.

동사는 광고문안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임」지의 보도를 과장해서 왜곡하여 잡지를
통하여 광고 홍보해 전국의 축산인들 특히,
양계인들의 큰 원성을 사 본회에 계속 항의
가 빗발치고 있으며, 최근 양계산물가격이 하락
하는 이유중 이러한 광고의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국적인 손해액을 보상해야만 한
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본회는 현재 동사의 전무, 광고책임자의 사과
방문과 광고계약 전면중지 및 유감의 뜻이 담긴
공문을 접수하고 있으나, 각지역의 양계인들은
회합을 갖고 광고계약이후 계속된 소비 위축으
로 양계산물가가 하락세를 면치못해 적정선으
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일간지 및 TV를 통
해 소비홍보를 해줄것, 전양축가에게 공개사과
를 할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회가 동사에 낸 항의 및 해명요구서는 다
음과 같다.

동원참치캔 광고에 대한 항의 및 해명요구

1. 귀사가 이코노미스트(5월 20일자), 주간
매경(5월 24일자) 등의 잡지매체를 통해 광고
선전한「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제하의 동
원참치캔 광고문안을 검토한 바,

2. 귀사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타임지」
보도를 마치 우리나라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
는 것과 같이 왜곡해 광고하였으나 이미 국내의
저명한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외국과는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되
어(3월 28일자 한국일보, 3월 31일자 동아일
보, 4월 17일자 KBS-2TV 등)한국인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반상식화 되어 있으며,

3.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은 물론 국가 백년대
계를 위한 국민보건과 체력향상을 위해 특히 자
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고기나 계란을
먹어야 할 우리의 현실로,

4. 귀사의 광고는 그간 정부당국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TV, 신문, 잡지, 라디오 홍보 및 요리강습회 개최, 영양사, 조리사 훈련 등을 실시해온데 대한 정면도전이며,

5. 축산업 및 이에 종사하는 2백만 축산인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축산가족은 귀사의 몰상식한 광고가 전축산인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강력한 응징조치를 강구하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6. 축산단체에서는 응징조치방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연일 양축인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어 금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귀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7. 광고윤리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귀사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체 생산단체 이름으로 요구하니 5월 31일 한 해명을 바랍니다.

제 2 차 부화 및 종계분과 위원회 개최

—매월 2째수요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정기모임 갖기로—

제 2 차 부화 및 종계 분과위원회가 5월 9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부화업의 당면문제인 입추를 늘리는 것, 법적으로 생산조절을 제도화하는 것과 PS수수와 GPS수수를 파악, 물량조절에 힘쓸것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또 전망검토에서는 초생추가격의 하락추세와 덤핑사태가 만연되고 초생추 출하수수가 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김정소 조경공사완료, 계란 및 닭고기 균납현황, 폴레스테롤 문제에 대한 대책,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 황, 인옥 전무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친목회 형식으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자주 만날것을 결의했다. 집회일시는 매월 2번째 수요일 오후 2

시로 참석범위는 전국의 부화및 종계업자로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사람의 매월 참석을 바란다.

제 2 차 감별분과 위원회 개최

— 감별사 시험 7월 21일 실시 —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 채인)가 지난 5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국의 분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84년도 제 1 차 감별사 자격시험 실시를 서울에서 7월 21일(토) 개최키로 하고, 응시접수마감은 6월 15(금)일까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감별사들의 경우 호주, 서독, 덴마크, 화란 및 미국 진출전망이 밝다고 보고 특히 독일어를 배워 들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육계감별은 1시간당 900수에 98%이상 조건이므로 육계감별 연습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제 3 차 감별분과위원회 및 단합대회는 부산 한미감별학원(부산진구 범천 1동 혜원다방 3층)에서 6월 8일(금) 오후 3시에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계란·육계 유통규격 조사사업

— 농수산부에 연구비 지원 요청—

양계산물 유통이 복잡해지고, 국민경제발전에 따라 양질의 양계산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국의 통일된 규격을 설정해 양계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본회는 농수산부에 계란과 육계 유통규격조사 연구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계란·육계유통이 단순히 무게에 의해서만 거래되고 있어 유통상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계란은 내부품질 및 등급별 영양가를 기준한 가격의 결정, 닭고기의 경우는 도계품질에 따른 등급설정이 필요해 '86 및 '88 국제행사를 앞두고 유통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알맞는 합리적인 규정을 설정키 위해 요청된 것이다.

미국은 현재 농무성규격으로 계란 AA, A, B, C등급이 각각 있으며, 닭고기는 A B C 등급이 있다. 일본 농림성 규격은 계란 특급, 1·2, 등외급 등이있어 각국의 양계산물 유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는 지원이 결정되는대로 전문 연구기관(해당전문가)에 의뢰해 기초자료를 만들 예정이며, 계란 및 닭고기의 거래등급 제정과 거래등급별 적정가격 비율을 구명해 합리적인 유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지속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5 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하절기 채란계 관리 세미나도 가져—



◁ 하절기 채란계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정선부 가금과장

5월 채란분과위원회가 5월 15일 오후 2시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황 인옥전무는 협회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계란공판장 설치건의, 계란 및 닭고기의 표준규격 설정 건의, 양계연수생 선발, 콜레스테롤 홍보, 육계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하여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안전도의에서는 산란계초생추 출하상황을 분석한후 난가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의 난가하락의 원인중에는 상인들의 이기적 상행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생산자들은 물량이 약간만 체화해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다고 말했다.

난가는 6월까지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난가하락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도 기인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회의에 앞서 가진 「하절기 채란계 관리」에 대한 세미나에서 정 선부박사(축산시험장 가금과장)는 온도상승에 따른 산란율의 변화, 하절기 연변대책, 환기와 산란율 등에 관해 외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명했다.

하절기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온 자체가 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CP율이 불균형되어 산란율이 저하된다고 말하고,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산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계절별 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변은 하절기 케이지 계사에서 많이 나타나

는데, 이는 공간이 좁고 케이지에 몸이 닿아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물의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닭들이 물을 적게 먹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선부박사는 또 환기도 산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풍속에 따른 산란율의 변화, 송풍시간에 따른 산란율 및 사료요구율의 변화에 대해 외국의 연구결과를 예시하여 설명했다.

한편 6월 채란분과위원회는 야외에서 갖기로 하였다.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행사

— 본회 등 축산단체 직원 30명 참가 —



본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9일 과천면 하리에서 직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내기 행사를 벌였다.

도계유통 및 가공세미나 개최

— 본회와 한국가금학회주최,
미국대두협회 후원으로 —

전국 도계장에 출장 자문도 실시

본회는 한국가금학회(회장 오 봉국)와 공동으로 미국대두협회(ASA, 한국대표 이 경원)의 후원으로 계육의 효율적인 처리, 가공, 유통을



(굿윈 박사)



(이무하 박사)

위해 미국 대두협회 도계유통 담당고문 Dr. GOODWIN (미국 알칸사주립대 교수, 도계처리 유통·가공 전문가)을 초빙해 지난 6월 1일 미국 문화원에서 도계유통 및 가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회 노영한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국내 도계장 관계자, 학자, 정부기관, 계육가공·유통업자, 생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가금육처리 및 가공산업의 발전과 현황소개에 이어 슬라이드를 통해 미국의 도계처리과정 소개, 국내현실과 발전방향 등 도계처리, 가공, 유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이 교환되었다.

한편 굿윈박사는 국내 도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무하박사(KAIST), 조세영차장(ASA), 본회 담당직원과 성남, 금산, 대구 등지의 도계장을 순회하면서 도계처리기술, 가공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준 바 있는데, 미국의 도계산업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수준이 현재는 낙후되어 있으나 업계의 단합과 개선의지가 높아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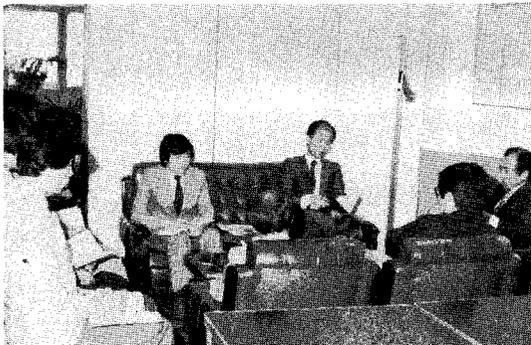
'88국제행사를 앞두고 짧은 기간내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도계품의 보관, 운반,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위생적인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 통역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식량공학연구실의 이 무하박사가 수고하였다.

본지는 이번호(p. 62 참조) 굿원박사와의 인터뷰에 이어 세미나 내용을 다음호(7월)에 상세히 게재할 예정이다.

기반조사요원회의 개최

— 지역 양계업계 현황 청취 —



본회는 지난 5월 14일(월)과 28일(월) 각각 전국의 기반조사요원들과 본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기반조사요원 연석회의를 개최

하였다.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경남북 지방 담당 기반조사요원이 조사한 부화장 입추현황 및 양계산물 시세전망, 지역 양계업계 현황청취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는 조사요원들이 매월 방문하는 전국의 부화장 현황과 각지역의 양계산업 현황을 청취,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해 양계정책 개발의 자료는 물론 양계산업 발전방향 설정의 정확한 지표를 결정하는데 그 뜻이 있다.

본회는 현재 정기적인 기반조사 사업을 실시(매월 1회이상 현지방문)하여 조사한 병아리 입추현황 및 출하성적을 분석해 본지와 매월 개최되는 분과위원회(2째주 수요일 종계·부화분과위원회, 15일 채란분과위원회, 27일 육계분과위원회)를 통해 매월 홍보함으로써 수급 및 입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5월중 기반조사요원 연석회의에서는 지역별 부화장 입추상황과 양계산물 가격동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부산지부, 제 1 회 친선바둑대회

— 안승철, 조주현씨 우승 —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중경)는 지난 5월 11일 일심기원에서 5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제 1 회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바둑대회는 A조(5급이상), B조(5급이하)로 나뉘어 개최되었는데, A조 우승은 안승철(채란업), B조는 조주현(육계업)씨가 각각 차지한 바있다.

이날 입상성적은 다음과 같다.

- (A 조) 1 등 : 안승철(채란업)
- 2 등 : 김영교(고려산업)
- 3 등 : 김승호(현대축산)

- (B 조) 1 등 : 조주현(육계업)
- 2 등 : 윤경직(채란업)
- 3 등 : 이재영(전 진흥사료 직원)

긴급육계 분과위원회 개최

— 닭고기 수매 비축 협의 —



본회는 닭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 5월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육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건에 들어가기전 지역별 현재상황 검토에서 육계의 출하가격이 kg당 630~680원으로 경영비에 밀도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자금 압박과 사료값 지급으로 인한 세미출하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초생추의 덩핑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분석됐다. 수매비축에 대한 토의는 지금 수매를 실시할 경우 불량조절이 안되고 장기화할것을 우려 반대하는 경우와, 수매하지 않을 경우 영세업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실시해야 한다는 두 의견으로 집중되어 결국 안정대선을 설정해 수매 조절용으로 상한선을 높여 수매비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루어졌다.

닭고기 수매비축 실시

— 축협통해 상시 운영토록 —

본회는 최근 닭고기가 성수기임에도 생산비 이하로 계속 하락하는등 생산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앞으로 도산 농가가 속출할 것을 우려, 지난 5월16일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닭고기 수매비축을 건의한바, 농수산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다.

닭고기 수매 건의에 대한 회신

건의한 닭고기 수매 비축은 축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상시 수매 비축제를 운영토록 지시 하였으니 귀회에서도 축협중앙회장과 긴밀 협의하여 수매사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닭고기 수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닭고기 수매 비축제 운영

1. 목적

• 닭고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닭고기 수매 및 방출업무의 자율적 실시로 지속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

2. 수매기관 : 축협중앙회가 직접 수매

3. 수매시기, 장소, 방법

가. 개시 - 생계 kg당 산지가격이 800원 이하 하락시

나. 중단 - 생계 kg당 산지가격이 800원 이상 상승시(다만 닭고기 생산비에 특별한 등락요인이 발생시에는 수매가격 수준을 별도 정할수 있음)

다. 수매장소 - 비축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도계장

라. 수매방법

① 축협중앙회에서는 지역 축협 또는 양계협회와 협의, 수매 일정별 수매 지역 결정

② 지역축협 및 협회에서는 수매 일정별 출하 물량을 축협에 통보

4. 수매가격

• 수매실시 시점의 산지시세에 준하되 축협중앙회장이 결정

5. 수매자금 : '84축산물 수급조절 자금

6. 수매한도 : 닭고기 500M/T (500천수)

7. 수매지역

• 지역별 산지가격 및 출하동향을 감안하여 축협중앙회장이 결정 시행함

8. 수매우선

• 1,000수이하 사육농가 생산분
• 농어민 후계자 생산분과 나환자 촌 생산분 우선수매

9. 비축계육 사후관리

• 수매계육은 필히 축산물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축협중앙회장은 수매계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여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계속수매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것

10. 비축계육의 처리

-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당부와 사전 협의후 시행

11. 사업손익

- 수매 닭고기의 판매손익이 발생시는 축산진흥기금에 귀속

12. 보고

- 기타 수매와 방출에 필요한 사항은 축협중앙회장이 결정 시행함

- 당일 수매 및 방출 사항은 축협중앙회에서 집계하여 농수산부에 보고함.

브로일러계열화 생산 세미나 개최예정

- 7월 18일부터 일본의 전문가 초빙 -

본회는 육계산업의 안정화가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돌파구를 찾기위해 한국가금학회와 미국사료곡물협회의 협조로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브로일러 계열화에 대한 세미나를 오는 7월 18일(수) 대전과 20일(금) 서울에서 각각 가질 예정이다.

브로일러 계열화생산에 직접 참여할 농장이나 이분야 관심이 많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봄이 일고있는 양계경영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인데, 계열화생산문제는 일본의 저명한 계열화 전문가로 한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고마이박사를 초빙하여 국내 부화장, 양계장, 도계장 등 관련산업을 견학한 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7월 18일(수): 대전(시간 및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
- 7월 20일(금): 서울 미국문화원 1층(시간은 추후 결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문 또는 본지 7월호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닭 경제능력검정소 조경사업 완료

- 전국의 양계인 단합의 표상 -

지난 3월 부터 본회 검정소 조경을 위해 많은 양계인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답지해 4월말 현재 본회 검정소 조경사업은 식수가 완료되었으며, 본 검정소도 2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검정소 조경을 위해 정성을 전해주신 회원, 단체, 업체, 기관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현수는 우리나라 양계산업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 양계인의 화합과 단결의 표상으로 꽃피워 후세 양계인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것이다.

지난 3월이후 현수기간동안 총707좌(707만원)와 은행나무, 전나무, 주목, 후박나무등 5~10년생 나무 215주가 답지한 바 있다.

전호에 누락된 현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윤학(신내농원 대표)	1좌
본회 부산·경남지부	10좌
김창곤(한국캐이지 대표)	5좌

양계산물 유통규격 시안제정 예정

- 합리적 유통 자료제시 위해 -

6월 1일부터 최고기와 돼지고기가 600g 한근을 기준으로 판매되던 것이 500g 단위로 판매된다.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는 아직도 품질문제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도 많다.

본회는 한국가금학회의 협조로 양계산물의 규격에 대해 금년 중으로 기초조사와 우리 현실에 맞는 규격기준 시안을 제정할 예정이며 계란 및 닭고기의 거래등급 및 등급별 적정가격 등을 구명하여 합리적인 유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양계산업의 안정발전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